

봉침요법강좌

봉침요법에 기본방침

(이 논문은 1999년도 日本蜂針療法硏究會 가을 연수회에서 발표한 것임.)

발표자 = 日本蜂針療法硏究會 太田直喜 會長

번역 = 朴鎭淳 韓國蜂針療法硏究會 副會長

지난호에 이어서▶

⑨경락조정혈(經絡調整穴), 유혈(兪穴), 모혈(募穴)에만 시술하여도 이것이 질병을 치유로 이끌어 가는 힘의 60~70%를 차지한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필자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마다 직접 시술하여 본 것만도 500여 회나 되며, 임상을 통한 많은 체험에서 얻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경락조정을 한다는 국부(局部)치료를 적의(適宜)선택하여 첨가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다.

⑩증상별 치료법에 어느 경락이 허하면 무슨 혈, 어느 경락이 실하면 무슨 혈 등으로 한 것은 이것이 70~80%는 적중되나 20~30%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확정짓지 못하였으니 경락의 허실 판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⑪치료 혈 수는 최소로 하고 최대의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연령, 체격들을 고려하여 약한 자극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연령별 치료점을 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 1~2세는 4~6개소
- ▶ 3~6세는 6~10개소
- ▶ 7~12세는 10~14개소
- ▶ 13~19세는 14~16개소
- ▶ 20세 이상은 16~30개소

⑫봉침술은 오직 경락의 허실을 정확히 판별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우고 여기에 알맞게 혈을 선택한 다음 정확한 취혈과 보사를 할 따름이고 사법(私法)이란 있을 수 없다.

難治(난치)라 하는

小兒中耳炎(소아중이염)

여러분도 가끔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抗生物質이 듣지 않는 小兒中耳炎이나 鼻炎(비염)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 10년 사이에 병원에 가도 재발이 계속되어 곤란하다는 12명의 적은 숫자나마 완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왜 완치하였다고 단언하는가는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2년전, 어떤 부인이 견비

통이 심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 보았으나 봉침요법만치 견비통이 잘드는 치료는 없었다 하며, [실은 저의 아이가 중이염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으나 좀 나았는가 싶으면 곧 재발하고, 재발, 재발의 반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벌침으로는 아이의 中耳炎이 낫지 않을까요?] 하는 상담을 받은 일이 있어서, 中耳炎을 치유시킨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化膿性疾患(화농성질환)이나 바이러스性의 疾患치료에는 저도 확실한 자신이 있었으므로 시험삼아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치료를 받겠다고 하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하여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가 병원으로 가는 날로 되어 있었으므로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더니, 이 아이가 병원에는 가고싶지 않고, 벌침쪽이 좋다는 말에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재차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날의 아이의 얼굴을 보니 아주 밝은 얼굴이 되어 있어서 봉침의 효과를 외견상으로도 느낄수가 있어 저도 자신있게 치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초 5학의 치료로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中耳炎이 낫고 부티는 그 아이의 어머니의 정보로 中耳炎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이웃에 있으면 봉침치료를 권하게 되어 가끔씩 中耳炎이나 鼻炎의 아이들이 잇을만하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2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연령적으로는 고르지 않지만 대개 3회부터 5회의 치료로 그뒤에는 병원에 간 일이 없다는 회답을 전화로 받고 있으므로 100%의 완치율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요점인 小兒의 中耳炎 치료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요점인 小兒의 中耳炎 치료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中耳炎이란, 頭骨로 보호되어 내부의音を 듣고 분별하는 上鼓室(상고실)에 생기는 炎症이 생기는가 하면, [鼓室과 鼻咽腔(비인강 : 鼻腔의 깊은 안쪽)] 이라고 하는 부분이 耳管이

라고 하는 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鼻咽腔(비인강)에 세균감염이 생기면 그 세균이 耳管을 타고 室에 이르러 中耳炎이 된다고 합니다. (耳管이란 배행기 등을 타고 경험하는 기압변화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하는 閉塞(폐쇄)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耳管입니다.) 그러므로 中耳炎이라고 진단된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코나 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침점의 주요점은 炎症이 생기고 있는 현장에 가장 가까운 환측의 穴 耳門에 1點, 또 코의 부분에서는 같은 그림의 4點 좌우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턱을 위로 올리고 턱과 목의 경계 중심선으로부터 1~1.5cm의 편도의 곳을 좌우2점(어린이의 성장에 따라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취점), 코와 목이 中耳炎의 感染源(감염원)이므로 중요한 穴입니다. 또 병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의 穴에도 봉침을 가해야 합니다. 幼兒에게는 大推(대추), 身柱(신주), 肩井(견정)의 3점을 가할 것을 권합니다. 또 5~6세 이상 초등학생 정도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친구관계 환경적인 것을 포함하여 강하게 관여하게 됩니다. 전기의 穴에 肺俞(폐유), 心俞(심유), 肝俞(간유) 등의 스트레스 해소의 穴을 추가하는 것이 결과는 좋습니다. 봉침요법전체적으로 할 이야기지만 어쨌든 빨리 고쳐주려는 친절한 마음이 원수로 되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찌르는 것보다 뽑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淺刺(천자 : 가볍고 얇게 찌르는 것)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별로 들은 적이 없는 穴의 명칭이 나왔으므로, 어떤 의미를 가진 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息(로식)이라는 穴인데 針炎經穴辭典(침구경혈사전)에 의하면 兩 頰를 말하며 息은 休息이나 中止를 의미합니다. 이 穴은 頭痛(두통) 小兒의 癲癇(전간), 경련등의 病症(병증)을 경감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息(로식)이라고 하었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脈(계맥)의 는 간질, 경련의 의미이고, 脈은 穴은 耳後淺靜脈(이후천정맥) 위에 있어서, 小兒의 경련이나 간질등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脈(계맥)이라고 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 보았더니 小兒와의 관계가 깊은 穴으로써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또 風(예풍)의 는 모양이 귀를 닮고 있고, 風은 바람이나 소리의 의미가 통하므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風(예풍)의 穴은 귓볼의 뒤의 가장 움푹한 곳에 있어서 주로 귀울림을 치료하는 穴이라고 합니다. 중국 4천년의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말씀 추가할 것 같으면 귓볼뒤의 息(천식), 脈(계맥) 부근은 中耳에 가장 가까운 곳이므로 신중하게 壓通點(압통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봉침액의 효과를 잘 살리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中耳炎治療(중이염치료)에 경험이 풍부한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체험담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치매(癡呆)에 대한 蜂針療法の例

(이 논문은 韓國蜂針研究會

제 18회 연수회에서 발표한 것임.

발표자 = 韓國蜂針研究會 한호우 理事)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매증이 사회문제가 되는 심각한 腦(뇌)의 병이다. 치매 증은 그 원인에 따라서 뇌의 혈관장애에 따른 뇌세포의 영양부족과 세포괴사가 일어나는 뇌혈관성 치매증과 원인불명의 大腦(대뇌)의 變性(변성)과 萎縮(위축)이 일어나는 老人性(알츠하이머형) 치매증으로 분류된다. 初期에는 가까운 과거의 기억이 주로 잊혀지기 쉽고, 症狀(증상)의 진행에 따라 먼 과거의 기억도 잊혀져 가까운 사람의 얼굴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게 이어진다. 사람은 누구나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치매라는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다. 치매는 현재의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도 장래의 노인이다.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1998년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251,000명이라 집계되어 있으나 실지는 이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이유는 집안의 수치라는 뜻으로 가능한한 치매 신고를 꺼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 남편을 간호해온 낸시 여사는 알츠하이머를 [최악의 질병]이라고 규정했다.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이다. 끔찍한 질병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자신의 병을 공개했던 것이다. 사실 본인에게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공개는 미국민을 위시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많지만,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 탓인지, 우리는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폐단이 심하다. 치매는 한 가정의 삶을 멍들게 하는 치명타이다. 막상 자신의

가족에 문제가 될 경우 외롭고 막막하다. 필자의 노모는 93세의 고령으로 시력, 청력 모두 정상에 가까운 편이고, 또한 식욕도 왕성하시다. 연세에 비해서 자세도 꽤 바른 편이다. 그러나 2, 3년전까지 보시던 벽시계의 숫자 개념도 또한 조석의 분별조차 못 하신다. 게다가 밤낮이 뒤바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고향을 지르고 혼자말로 무언가 되뇌인다. 아마 시간과 장소의 의식이 없어져 사람과 동물의 모양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 동병상련이란 옛말과 같이, 이런 경우는 당해 본 사람만이 그 실상을 알 것이다. 몇달전부터 그 증상이 더욱 심하여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봉침과 뜸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먼저 봉침쪽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성심껏 시침하였더니, 근간은 자기거실의 접동, 야간 수면상태 야간의 고향 등 현저하게 호전되었다. 물론 대화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부족한 분자물질을 보충하고 저항력을 강화하여 뇌신경계를 부활시키는 봉침의 작용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 성분들을 대략 살펴보기로 했다.

1. 히스타민

혈관확장, 평활근의 수축, 위산분비 항진 혈압강화 혈행촉진 등의 작용이 있으며, 견비통이나 본태성 고혈압의 해소는 히스타민이 주력이라고 생각됨.

2. 도파민

지로스인으로부터 유도되는 아미노산으로 우리의 뇌에 있는 A계열 신경이 분비하는 맹독의 물질이라 한다. 그 맹독이 뇌의 각성물질이라는 것이다. 각성, 의욕, 지능, 기억, 행동, 창조, 쾌감 특히 인간의 정신감정을 활성화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로 몸의 상태가 나빠졌거나 피로, 질병, 노화나 특히 중년여성에게 많은 호르몬균형의 변조등으로 불쾌감, 의욕 상실등의 증상에는 봉침요법이 獨斷場(독단장)이기도 하다. 또 이 성분이 극도로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도파민이란 물질면에서 생각하여 파킨슨병은 봉침요법의 대상질환이라 하여 틀림없을 것이다. 노화의 초보현상으로 건망증이 있을 때 월 2~3회의 봉침은 사고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노르아드레나린

각성외에 학습, 진통, 배뇨, 혈액순환, 호르몬계의 조절, 체온의 유지, 무의식활동등, 인체생명의 근원에 관계되는 뇌 신경활동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교감신경계에 혼란을 일으켜 자율신경부조증상 특유의 현기증, 두통, 견비통, 변

비, 배뇨이상, 냉증, 불감증, 불안감, 천식등의 제증상으로 고생하게 된다. 봉침요법으로 비교적 빠르게 자율신경부조증상이 개선되는 것은 노르아드레나린 작용의 결과라고 하겠다.

4. 세로토닌

앞에 말한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나린은 뇌신경의 각성성에 작용한다는 물질이었는데 세로토닌은 이것의 과잉활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이란 물질 덕분에 뇌의 A계의 신경이나 교감신경의 폭주도 억제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활동중에는 온갖 여러 방면에서 이와같은 +, -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역할이 있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인데 가끔 생기는 바란스의 불균형이 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신분열증에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을 인공약물을 처방하나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파킨슨병을 발병케 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신분열증에는 봉침요법을 시험할 가치가 있다. 이 외에도 봉침액에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백혈구 증가작용, 진통작용, 소염작용, 세포막의 계면활성작용 앞에서 말한 뇌신경의 부활조정 작용등 우리의 질병에 도움이 되는 많은 분자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참으로 천혜의 물질이라 느껴져 대자연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식물검역 조사연구 착수

우 건 석 한국양봉과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

우건석 교수는 농림부의 지원으로 유용생물(천적, 방화곤충)의 위험 분석기준 및 적용기법 개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교수는 유용방화곤충의 수출입과 위험평가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1일간 미국 하와이로 현지 출장하여 유용한 생물일지라도 외국의 생물이 들어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물검역소, 하와이 농무부, 하와이대학 식물·환경보호부, 비숍 박물관 곤충학과의 담당자로부터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농장에서 방화곤충의 활용도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방화곤충이 우리 나라에서 어떤 환경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일과 수입에 전제 되어야 할 규정의 개발에 있다. 현재 무대책으로 도입하여 사용되는 서양뒤영벌과 가위벌등도 적절한 방법으로 유용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